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2월 2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욱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 정금옥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다채롭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절망과 슬픔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무척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군 미필자여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그 당시 회사에 취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렵게 공부를 시킨 남편, 시댁 가족의 희망이었던 남편이 오래 실업자로 있다 보니 저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당하듯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 큰집 오빠가 ‘결혼해서는 귀머거리 3년에 병어리 3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기에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시댁에는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까지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남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일년 열두 달 내내 제사상 차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제사 때마다 떡을 하고 밥을 그릇마다 소복하게 퍼 담아 집안 곳곳에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낸 음식을 소쿠리에 거두어 이웃집에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눈앞이 아득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성탄절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 다기에 친구 따라서 가 본 것이 전부였지만, 밤중에 제사상을 차리는 심부름을 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죽고 싶을 만큼 싫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으니 봅니다. 그런 내 모습을 기억하셨는지,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꾸며 놓고 절하며 빌던 우상의 형상과 물건을 다 걷어다가 불에 태우고는 “내가 죽으면 네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겠지만 너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구나. 너는 앞으로 예배당에 다니거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할머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아이 셋을 낳고 분가를 했습니다. 열 식구가 한 집에 우글우글 모여서 살다가 따로 나가서 생활하면 마음만이라도 홀가분하고 좀 편할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상 분가하고 보니 혼자서 아이들 키우기가 힘든 데다가 남편이 사업한다고 여러 번 사기를 당하여 더 몸과 마음이 고달팠습니다. 나중에는 위궤양으로 인해 국수 한 가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신경성’이라 낫기가 힘들

다면서 아이 하나를 더 낳으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넷째를 임신하자 형편이 어렵고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수술을 할까 하고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약해서 수술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넷을 낳아 기르면서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듣도보도 못한 일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을 따라서 안양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내고 우리에게 빚만 더 안겨주었습니다. 살던 집을 빼앗기고 직장도 잃고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싶었지만 어떤 분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집에서는 ‘장독의 돌만 옮겨도 동티가 난다’는 말을 하므로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따라 절에 가서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네 군데 시춧돈을 넣는 함에 나눠 넣고 차례로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나오면서 다시 불상을 쳐다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곳에 오거나 점쟁이를 찾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교회에 다니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주일이 되자 은혜와진리교회에 가서 성전 맨 뒤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교회의 누구와도 이야기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 사정을 잘 알고 말씀하실까, 주시는 말씀에 위로 받고 감동되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교회에 왔나요? 진즉에 교회에 나왔으면 이렇게 오래 고통스럽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예배시간이 아니어도 교회에 가서 성전에 앉아있으면 그곳이 나에게 편안한 안식처요, 천국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회까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역자님들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와서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매번 울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남편과 싸우기라도 하면 그날 교회에 가지 못할까 봐 전처럼 다투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했던 큰언니가 이제는 내가 그런 말에 들은 척도 안 하니 “너는 속이 있냐? 없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편을 많이 원망하고 때로는 미워하였는데 이제는 남편을 측은히 여기면서 내 잘못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가 심한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태복음 13:44) 당장 살 집이 없고 갈 곳도 없어 길에 나앉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생명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마태복음 8:20)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못나서’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똑똑하게,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는지, 완전히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궤양이 어느 때 나왔는지 모르게 나아서 45kg이던 몸무게가 금방 50kg이 되었습니다. B형 급성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2개월은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이 링거주사 그만 맞고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했더니 9일 만에 다 나았다며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여러 차례 수술대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생각에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신유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세상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며 삶을 사는 힘과 용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고맙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녀의 본분,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말아라. 남에게 빚지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가 공직에 몸담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고 결심할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은 말로 다할 수 없으며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누구나 전도해 본 사람은 다 느낄 것입니다. 성당에 다니던 큰언니가 저로 인해 교회에 나오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대학 입학시험을 치른 손자가 어렸을 때 제가 봉사하기 위해 일찍 먼저 교회에 가면 뒤따라 손자를 데리고 교회에 오고, 또 명절 같은 때에 큰아들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면 언제나 제일 먼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예배 드리러 갈 준비를 하곤 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제가 간혹 남편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핀잔을 주곤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팔십이 넘은 나이에 뒤돌아보니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동안 걸어온 길이 너무 멀고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저의 삶은 나날이 운택해지고 평안하고 여러모로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처음 교회에 온 날부터 내 수중에 단돈 얼마만 있어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배의 돈이 생깁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누가 무어라 하든,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즐거움, 기도하여 응답 받는 즐거움을 한없이 누리게 해 주십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1권 (제4단원 :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제28과) 성령의 열매

- 본문 : 갈라디아서 5:22-26
- 요절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 찬송 : 427장(새찬송가 191장), 은혜와진리찬양 274장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성도가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그 생활 가운데서 맺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즉, 조건을 초월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희생적이고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므로 이제 이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한평생에 걸쳐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능력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2.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희락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근거하여 얻어지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므로 그것은 머지않아 공허와 근심과 걱정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초월하고 승리케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3.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화평이란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화평이요, 둘째는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오는 화평을 말하며, 셋째는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나서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며(엡 2:13-19), 이렇게 하여 획득한 화평이라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화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 마음에 화평이 깨어져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늘의 평화는 얼마나 찬란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 전쟁과 혼란과 위기가 끊이지 않고 다가오지만 성도들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심령이 평화롭고 그러한 성도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 오래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인내가 없이 성취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에게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 기다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로서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오래참음의

열매를 맺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비란 ‘친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친절을 나타내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영접하셨으며 온갖 병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는 것과 친절함은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엡 4:32).

6.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양선은 흔히 자비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선은 양심과 관계되는 경건한 삶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인자하게 사랑의 팔로 안아주는 것과 같다면, 양선은 그 위에 엄격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즉, 양심에 근거하여 경건한 삶을 살고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란 그 마음속에 가득한 선을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기꺼이 베풀어 줍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일에 양심적인 처신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나타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 사회는 보다 더 밝아지고 사람 살 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7.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믿음’을 뜻합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의 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여 이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 충성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8.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온유란, 성도가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갖는 부드러운 심정을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마 11:29)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빌 2:1-11)입니다. 때로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과 온순의 뜻과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복을 주십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9.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절제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우리의 육체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감정과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운바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절제의 열매를 맺힘이 없이는 결코 그 목적인 바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맺힐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자기의 의지를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나아가 때 이러한 열매들을 맺힐 수 있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